

‘학생 중심’ 동신대학교, 입학부터 취업까지 책임진다

광주·전남 일반대 취업률 1위...반려동물학과·태권도학과 신설
10일~14일, 2022학년도 수시모집...전체 98.4% 1626명 선발
39개 학과 중 36개 학과 입학 등록금 전액 우수인재장학금 지급

‘학생 중심 대학’ 동신대학교가 2022학년도 수시 모집으로 39개 학과·학부, 1626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체 모집 인원의 98.4%로, 모집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다.

◇전형간 2회 지원, 교차 지원도 가능=동신대는 한의예과·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를 제외한 36개 학과 및 학부가 수시 모집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 1518명(정원내 1433명, 정원외 85명), 실기위주로 108명을 뽑는다.

학생부교과와 일반전형과 지역학생전형은 학생부 100%(교과 성적 80%+졸결 20%)로 선발하며, 면접전형은 학생부 70%와 면접 30%를 합산한다. 한의예과·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면접평가 결사자는 다른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위주 일반전형(학생부 40%+실기 60%)으로 뮤지컬·실용음악학과, 태권도학과, 공연예술무용학과 각 30명을, 특기자전형(학생부 10%+경기 실적 90%)으로 생활체육학과 13명과 운동처방학과 5명을 선발한다.

수시 모집 전형간 최대 2회 지원이 가능하지만, 동일전형 내 복수 지원은 할 수 없다. 문·이과, 예·체능 구분 없이 교차 지원은 가능하다.

◇반려동물학과 등 신설학과 첫 신입생 모집=동신대는 올해 미래 산업 수요를 반영해 학과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공연예술무용학과, 태권도학과, 반려동물학과 등이 신설돼 첫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공연예술무용학과와 태권도학과는 모두 실기 위

주 일반 전형(학생부 40%+실적 60%)으로 신입생을 30명씩 선발한다.

반려동물학과는 제약공학과에서 이름을 바꾼 제약·화장품공학과와 함께 바이오헬스케어학부로,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수시 모집에서는 일반전형(학생부 100%) 33명, 면접전형(학생부 70%·면접30%) 13명 등 46명을 뽑는다. 1학년 때 공통 교과목을 듣고, 2학년 때 성적과 적성 등에 따라 전공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학부(건축공학과·산림조경학과), 국제어문학부(관광일본어학과·중국어학과·한국어교원학과), 호텔항공관광경영학부(관광경영학과·항공서비스학과·호텔경영학과) 등 신설 학부도 올해 첫 신입생을 선발한다.

◇39개 중 36개 학과·학부 입학등록금 ‘0원’ 파격 장학금=우수 인재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입학해 자신의 꿈을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수시 모집 일반학과(한의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최초합격자 모두에게 입학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우수 인재 장학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전체 39개 중 36개 학과·학부의 최초합격자들은 입학등록금이 말 그대로 ‘0원’이다.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 최초 합격자들에게는 입학 장학금 100만원을 준다. 수시 모집 일반학과 총원 합격자에게도 100만원의 입학 장학금을 지급한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일반학과 수능 우수장학금과 학생부 우수장학금도 마련했다. 수능 국어·수



취업을 1위인 대학 동신대학교가 입학등록금 면제와 대폭적인 장학금 지원, 미래산업 수요를 대비한 학과 신설 등을 내세우며 오는 14일까지 수시모집을 진행한다.

학·영어·탐구(2과목 평균) 4개 영역의 평균 등급 3.75 이내 학생에게는 4년간(8학기) 등록금 전액을 감면한다. ▲4.25등급 이내 4학기 등록금 전액 ▲4.50등급 이내 입학 등록금 전액 ▲5.00등급 이내 입학 등록금 50%를 장학금으로 준다.

학생부 우수장학금은 ▲1.00등급 2학기 등록금 전액 ▲2.00등급 이내 입학 등록금 전액 ▲3.00등급 이내 입학 등록금 50% 감면 혜택을 준다.

의료보건 계열의 경우 간호학과는 수능 평균 4.00등급, 물리치료학과는 4.75등급까지 장학금을 주며 단과대학 수석에게는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동신대는 입학생뿐만 아니라 재학생 장학금도 풍

성하다. 2020학년도 전체 재학생 6065명(1·2학기 평균) 중 1535명(25.3%)이 1년 전액 장학금을, 2220명(36.6%)이 한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한 번이라도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6339명(휴학생 포함)에 달해 평균 재학생 수를 웃돌았다.

◇광주·전남 일반대학(졸업생 1000명 이상) 중 취업률 1위=동신대는 최근 3년 연속 광주·전남(졸업생 1000명 이상 일반대학) 취업률 1위를, 11년 가운데 9년 동안 취업률 1위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취업의 질도 뛰어나다. 최근 2년 동안 혁신도시 공기업 정규직으로 26명이 취업했으며, 공무원과 교사 150여 명을 배출했다. 또한 전남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최근 3년 연속으로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을 배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열 국가시험 합격률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최근 2년간 81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특히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합격률을 기록하며 국시에 강한 대학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최일 동신대 총장은 “최근 정부가 소득분위 7~8분위 학생들까지 국가장학금 350만 원 확대 지원을 발표함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됐다”며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취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 혜택과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송원대학교,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내년부터 3년간 지원...교원양성기관 역량 우수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가 2021년 교육부 대학기부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대학기부역량진단은 대학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는 정부 정책이다.

이에 따라 송원대는 교육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재정지원을 받아 한층 강화된 대학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또한 제4,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도 우수한 평가결과를 획득했으며, 특히 간호교육인증평가(2020)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았다. 대한민국 브랜드만족도 교육부분 1

위(2018)에 선정되는 등 지역의 명문대 면모를 갖추고 있어 우수한 학생들의 지원이 기대된다.

송원대 최수태 총장은 “앞으로 더욱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의 신산업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위해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송원대만의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해 흙 속의 진주를 찾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원대는 초연결사회에 적합한 교양인, 도전과 혁신의 창인인, 지역정착형 실천적 전문인, 글로벌 역량을 갖춘 세계인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LINC+ ‘취락퍼락 취업 스킬업 교육’

17일까지 신청서 접수...맞춤 취업전략 수립 기회

호남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양승학)이 재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맞춤형 취업전략을 위한 취락퍼락 취업 스킬업 교육 희망자 모집에 나섰다.

오는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비대면으로 실시되는 이번 ZOOM 교육은 ▲취업 트랜

드와 직무·기업 분석 ▲직무역량 평가 ▲보이스트레이닝과 클리닉 ▲자세와 스피치 클리닉 ▲모의면접, 면접의 기초소양, 태도 영상평가 및 피드백, 1:1실습교육 등으로 짜여져 있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오는 17일까지

대학홈페이지 학사행정알림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대학본부 3층 LINC+사업단(문의 062-940-5716)에 방문제출하거나 이메일(2021023@honam.ac.kr)로 제출하면 된다.

양승학 단장은 “이번 교육은 취업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해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신만의 맞춤 취업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취업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전문사설탐정사 20명 배출...특별과정 수료식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전문 사설탐정사를 배출했다.

동강대 평생교육처(처장 조남철)는 최근 도서관 세종홀에서 PIA(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사설탐정사 최고위특별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동강대 평생교육처는 올 1학기 탐정 관련 프로그

램을 개설해 20여 명이 ‘민간조사자/사설탐정’ 교육을 수료했다. 올 2학기에도 ‘민간조사자/사설탐정’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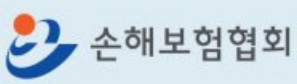
동강대 경찰경호과 양정원 교수는 “최근 탐정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 과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동강대는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호남 최초로 경찰경

호과 정규 수업에 탐정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강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에는 한국탐정협회(회장 하극석)와 업무 협약을 가졌다. 동강대와 탐정협회는 탐정분야 학술연구와 교육개발, 대학·협회 연계 프로그램을 비롯해 전문대학 혁신지원 ‘후진 학선도형’ 사업 수행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동강대 경찰경호과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2022학년도 수시 1차 신입생 모집에서 2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